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07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한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41

아흘람 이야기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한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우리는 미생물로 충만한 하나의 호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 Gro Harlem Brundtland,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2022년 11월 13일 현재 전 세계에서 6억3천9백만 명이 감염되었고, 662만 명이 사망하였다.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았다. 글로벌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백신 불평등으로 표출된 자국 이기주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의 일상화, 코로나 블루의 확산, 랜선 라이프의 등장 등 인류 역사는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 필자의 공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2판』(박영사, 2021), 『통일과 사회복지』(나남, 2017)와 출간 예정인 『북한 보건 의료 연구와 창의적 협력』(고려대 출판사)의 일부 내용이 인용되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며 코로나19로부터 인류가 배우고 있는 교훈이 있다.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는 점이다. ‘잇대어 있다’는 표현은 ‘서로 이어져 있고, 기대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그리고 환경까지도 잇대어 있다. 해서 서로를 연결하던 생명의 끈을 놓는 순간, 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위협받기 마련이다. ‘남’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협해진다는 말이다. 일상이 된 마스크 쓰거나 백신 접종도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시야를 넓혀 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보자.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나라에도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발생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2차, 3차, 4차 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미 세상은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인간과 동식물·환경이 수시로 교차하는 ‘one world, one health’의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이다(그림 1).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팬데믹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나라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21세기에도 19세기 방식의 방역인 ‘단절과 봉쇄’로 회귀한 문명의 역진(逆進)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음에 다가올 팬데믹에 인류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생명’ 그리고 ‘공동체’이다.

이 둘을 묶으면 생명 공동체 혹은 건강 공동체가 된다. 건강 공동체는 생명이 움트고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며, 그래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이다. 생명의 소통은 공동체를 살리는 자양분이다. 인류가 코로나 19에 직면한 것은 동식물, 자연의 생명과 더불어 소통하며 공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 공동체가 코로나19에 맞서며 난관에 봉착한 것도 생명의 본질에 주목하며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연결 사회에 초장벽(super-wall)이 강화되는 역설

코로나19 팬데믹은 금세기 동안 경험한 바 없는 중대한 사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지난 세기와 다를 바 없었다. 공간과 시간, 인간과 자원이 순식간에 만나는, 초연결된 세상에서 각 나라의 대응은 단절과 각자도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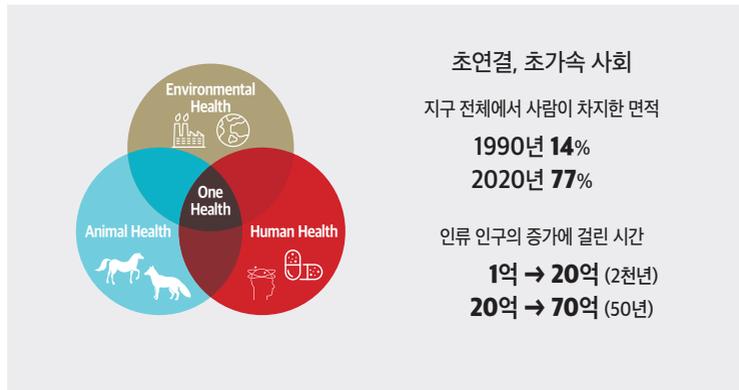


그림 1. 초연결, 초가속 사회와 One Health

출처: Our World in Data

초연결 사회에 초장벽이 강화되는 역설이었다. 장벽 높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던 대만도 결국은 팬데믹을 막을 수 없었고, 2020년 2월부터 육·해·공 국경을 모두 봉쇄하며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던 북한마저도 결국은 코로나의 광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문명의 역진을 강요하는 코로나19에게 우리는 공존과 협력을 통해 당당히 전진하는 인류의 미래를 보여 줘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인류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전염성 위기를 초래한 지역에 대한 고립과 단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곳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찍기가 횡행했다. 심리적 초장벽의 등장이었다. 코로나19 초기 독일의 유명 시사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표지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문구와 함께 붉은 방호복과 방독면, 헤드폰을 착용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이탈리아의 한 학교는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학생들에게 공문을 보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미국에서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경멸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

데, 서양에서는 우한이나 중국을 넘어 아시아인 전반에 대한 낙인찍기와 혐오, 인종주의 공격이 늘어났던 것이다. 세계적 의학 저널인 <네이처(Nature)>지는 사실을 통해 2015년에 이미 WHO가 발표했던 내용을 인용해 낙인찍기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바이러스성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 지점이나 구역을 연관 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바이러스는 모든 인류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들이 누구이건, 어디에서 왔건 모든 사람이 다 위협하다고 강조했다¹⁾.

가슴 아픈 것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계층에 더욱 상처를 줬다는 점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좁은 침상에 몸을 누인 어르신들, 병실 모퉁이에서 24시간 그들의 수발을 들었던 간병인들, 격무에 시달리던 콜센터와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정통 교회를 등진 채 영혼의 위로를 구했던 신도들... 이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희생양이었지만 대중들로부터 비난 세례를 받기 일쑤였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을 때는 ‘게이클럽’을 강조한 기사들이 포털의 순위 상단을 장식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혐오가 이어졌다. 과학적 사실을 말하자면 바이러스는 어느 지역, 누구에

1) Stop the coronavirus stigma now. *Nature*. 2020 Apr;580(7802):165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0-01009-0>

서든 시작될 수 있다. 어제의 우한이 오늘의 뉴욕, 내일의 서울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인종과, 국적, 지역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이웃이 환자가 되면 안타까워하며 쾌유를 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감염병의 역사 속에서 대유행은 일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해 희생양을 찾아왔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혐오라니... 불과 100nm의 크기에 불과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만 년 이상을 이어 온 인류애를 파괴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인지상정과 연대감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19와의 대결에서 진짜 패배를 증명하는 쓰라린 증거이지 않겠는가?

다양성의 파괴가 초래한 팬데믹

최재천 교수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은 생물 다양성 파괴에서 초래되었다고 강조해 왔다. 고대 혁신포럼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노멀과 대학의 역할’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미래지식포럼’ 강연 등에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해 왔다²⁾. 그는 “농경 사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과 가축의 총 무게는 지구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은 전체의 96-99%를 차지하며 지구를 점령했다”며 “이로 인해 야생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류와 가축에게 옮겨 왔다”고 지적했다. 지구 전체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면적도 1990년 14%에서 2020년 77%로 증가했고,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팔라서 1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데 2천 년이 걸린 데 비해, 20억 명에서 70억 명이 되는 데는 불과 5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그림 1). 야생동물에게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지구를 점령한 인간이라는 숙주가 공격

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EH8WK40>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기 쉬운 목표물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인간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간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옮겨 오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는 “20세기까지만 해도 전염병 발생 주기는 20~30년 정도였다”며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조류독감·사스·돼지독감 등의 전염병이 2~3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험한 코로나19보다 더 센 팬데믹이 이번 세기에 또 올까? 미래학자들과 감염학자들은 앞으로 더 빨리,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될 전염병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그림 2).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분을 넘어 생명의 관점으로 인류의 삶이 재편되지 않는 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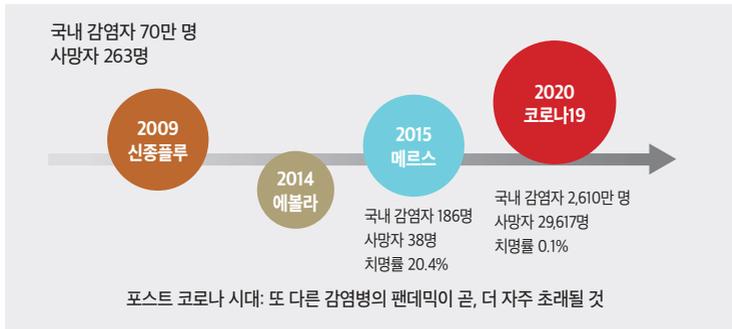


그림 2.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왜냐하면 그것은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 William Donald Hamilton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자연은 순수해야 좋은 것처럼 인식되곤 하지만, 실상 자연에서 말하는 ‘순수’는 다양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질병에 취약하다고 얘기한다. 조류독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지만, 정작 이를 옮기는 철새에게는 큰 피해가 없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량되어 비슷한 유전적 구조를 갖게 된 종들의 동일성이 취약성을 키운 결과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결혼을 이어 갔는데, 결국 이것이 유전적 취약성으로 인한 질병을 일으키고 왕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팬데믹은 섞이면 위험하다. 그래서 격리하고 단절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가까워져야 했다. 마스크라는 물리적 차폐 행위도 실은 나를 지키고 남도 지키기 위한 자리행 이타행(自利行 利他行)의 상징적 행위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연대(solidarity)이다. ‘연대(solidarité)’라는 말과 사상이 역사에 의미 있게 등장한 것은 프랑크혁명이며, 이 시기에 ‘연대’

는 자유(liberté)·평등(égalité)과 함께 혁명의 이념으로 제시된 ‘형제애 (fraternité)’의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연대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공감으로 시작된다. 특히 의료인에게 공감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는 것이며,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의료인이 좋은 의료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다른 처지와 상황에 대한 공감, 팬데믹 극복이라는 공동 이익에 기반한 책임감, 이것을 가능케 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그리고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양성의 가치가 구현되어 왔다면 인류의 팬데믹 극복, 혹은 코로나와의 공생은 훨씬 빨라졌을 것이다.

백신 불평등이 악화시킨 팬데믹

백신은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였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10년 정도가 걸리는 데 비해 코로나19 백신은 불과 1년여 만에 상용화되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개발이다. 이 백신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인류가 여유를 찾게 되었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부터 ‘위드 코로나’ 전략이 시작되었다

백신과 관련된 국가 간 격차는 인류의 또 다른 부끄러운 민낯이다. 11월 현재 세계 인구의 68%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도 23%에 머물러 있다³⁾.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차 부스터 접종을 한 반면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저소득 국가들은 1차 백신의 확보조차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팬데믹 극복을 어렵게 했다. 바이러스도 생

3)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명체이기 때문에, 백신을 손에 쥔 인류의 대응에 맞서 반격을 하기 마련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그런 예이다. 영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알파·베타·감마·델타·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들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시작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나라의, 영양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밀집 거주지에서 유행이 폭증하면서 변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기 전에 지구적 차원에서 백신의 생산과 분배가 계획되고 신속하게 집행되었다면 변이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신 및 치료제 접근, 검사와 연구 역량 등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잘사는 국가들에 자원이 크게 치우쳐 있다. 백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유예하거나, 신속한 기술 이전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계적인 불평등이야말로 우리가 팬데믹을 3년 넘게 종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공식적 백신 접종률이 제로인 나라

북한은 공식적인 백신 접종률이 0%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코로나19 환자는 0명이었다. 검사 자체가 제한적일 상황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국경의 전면 봉쇄와 강력한 이동 제한 등 고전적인 방역으로 팬데믹 예방에 성공한 국가라고 선전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2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6월 기준 458만 명(북한 인구의 18%)이 발열자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코로나19 제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병 규모가 증가한 나라로 급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8월 10일에는 코로나 방역 대전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였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폐쇄되며 북한의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북 수입이 2020년 통계에서 80%나 급감하였다. 식량 부족도 심각하여 미

국 C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2~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86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봉쇄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인도적 구호단체들도 북한에서 철수하였고, 식량이나 의약품의 지원도 매우 제한되는 3중고의 상황이었다. 영양부족 인구가 전 주민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Global Hunger Index 2021), 결핵 유병 인구는 13만 5천 명으로 추정되며, 방역 장비, 의약품 및 치료 장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공식적으로 0%인 나라였다. 게다가 다른 개발 도상 국가와 달리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고령 인구의 비율이 240만 명(전 인구의 1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사망했을까? 우리나라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 0.6%와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수만 명에서 10만 명의 이상이 사망할 것이며, 강력한 봉쇄의 부작용에 따른 식품 공급 부족으로 더 많은 非코로나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공식 집계 따르면 사망자 수는 불과 74명으로 사망률은 0.002%에 불과하다. 감염학자들은 세상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들 생명의 무게는 다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당연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도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녘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유아 때 사망할 가능성이나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할 가능성은 우리에게 비해 각각 5배가 높다. 북한에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결핵약이나 백신 등 필수 의약품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창궐 역시 북한 주민, 특히 취약 계층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북한 보건 의료의 회복 탄력성과 중장기적 내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북 활동들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한반도의 현실에서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가슴이 먹먹해진다.

■ 공동체, 한반도 건강 공동체

북한을 우리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 공동체의 사전적 정의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임을 고려할 때 지리적 공통성과 유사한 민족적 정체성은 공유하지만, 가치의 측면에서는 공동체라 할 수 없을 만큼 남과 북은 멀어져 왔다. 특히 북핵 개발과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 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한반도 공동체’라는 용어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용어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며 미래 한반도의 궁극적 비전이다. 그러나 통일은 한편에서는 적화 통일로, 또 한편에서는 흡수 통일로 적잖은 오해를 불러왔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통일은 남북 모두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공동체 준비』의 대표 저자인 전우택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분단의 궁극적 극복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둘을 억지로라도 하나로 만든다는 무언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공동체’라는 용어는 다르다. 굳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도,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각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정말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최종적 ‘통일’에 합의하면 그것도 좋고, 설사 그런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괜찮은 그런 여유 있고 평화적인 관계를 상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왜 건강 공동체인가? 전 교수의 설명을 계속 들어 보자.

“민족의 분단은 이 땅 대부분의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총알들이 날아다니게 하였고, 엄청난 양의 폭탄이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에 의하여 그야말로 강처럼 피가 산하에 흐르면서, 민족의 가슴속에 엄

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한반도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통일은 바로 그런 상처,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다. 개인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인 이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바로 보건 의료의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역할이다.”

통일 이전에 공동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공동체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건강 공동체는 경제·사회·문화, 더 나아가 최종적인 통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군사 공동체에 우선해서 형성되어야 하고, 그럴 때 다른 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경제 공동체를 예로 들어 보자. 경제 공동체를 위해선 북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건강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협을 할 때도 북한 지역의 보건 의료와 복지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사람을 준비한다는 관점이 겸비되어야 한다. 즉 건강 공동체가 먼저 혹은 동시에 형성되어야 경제 공동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돈’을 기반으로 움직이

는 것이다.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매개로 하여 이어지는 소통과 협력은 위험할 수 있다. 반면에 보건 의료 협력은 ‘사람’을 향한 움직임이다. 분단 이후 서로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고 긴 세월을 지내 온 남북의 사람들에게 보건 의료는 각별할 수 있다. 치유는 크고 넓고 따뜻한 마음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 의료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치유의 도구이자 따뜻한 화해의 단초이며, 이후 전개될 경제 협력, 정치 협력 등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리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말에 수긍하리라 본다. 한반도의 면적은 22만 km²에 불과하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염성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또한 미세먼지나 오염원, 지진 등 재해들은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한반도는 환경과 기후, 감염병 등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지정학적 구조라는 얘기다. 영화에서 다루어졌던 것처럼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그 재난의 무게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반대로 남북의 협력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해 낸 경험도 있다. 개성공단이 열려 있을 때, 남북한이 공동 방역을 하면서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쪽에서도 말라리아가 없어진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건강 이슈

에 대한 공동 대처가 남북한의 상호 이익에 기여한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 당국이 미워도 건강 안보(health security)의 측면에서라도 남북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잇닿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비극적 유산을 희망의 자산으로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쟁과 분단이라는 유산이 깊게 배어 있다. 남북한 군인, 참전국 군인, 민간인을 망라하여 5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전쟁은 비극 그 자체였다. 그 이후 분단된 한반도는 70년 이상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회복하기 어려운 중환자처럼 보인다. 전쟁의 상흔, 공동체의 파괴. 이념 대립, 성공주의, 속도전, 엄청난 군사비 등 분단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들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격화된 남남 갈등, 진영 갈등도 분단의 상처가 잉태한 쌍생아일 수 있다.

전쟁은 공동체를 파괴했다. 같은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념으로 서로를 죽고 죽였다. 우리 가문에도 그런 비극적 유산이 아로새겨져 있다. 종교적 이유로 21명이 순교하는 아픔을 겪었다. 내가 통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인 사연이다.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들도 분단된 한반도의 유산이다. 3만4천 명에 달

하는 탈북민들은 ‘동일 민족에서의 이주민 혹은 난민’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지 여부는 이후 한 반도 공동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온 통일이다. 2008년부터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탈북민 무료 검진을 하며 이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민족에서의 이주민 코호트(NORNS)’를 구축했다⁴⁾.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전수인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 70만 명과 1:20의 비율로 매칭하여 질병 양상, 질병 부담, 기대 여명 등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야를 확대하면 한반도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코호트이다. 유전적으로는 동일하나 70년 이상의 분단을 통해 상당히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적 동일성을 전제한 환경의 변화가 세대를 넘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코호트가 한반도다. 갈라파고스라는 고립된 섬이 현대 과학에 엄청난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고립되어 있던 북한 주민들과 개방되어 있던 남한 주민들의 건강 비교 연구를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4) Lee, Y.H., Lee, W.J., Kim, Y.J. et al. (2012). North Korean refugee health in South Korea (NORNS) study: study design and methods. *BMC Public Health* 12, 172.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자. 이를 통해 한반도 건강 지도를 그려 내고, 환경이 질병의 양상에 미친 영향, 후생유전학 등 관련된 병인, 치료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기념비적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의학, 사회의학 분야도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70년 이상을 상호 간 증오로 대립해 왔던 집단이, 그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사회치유, 정신 건강의 역동과 관련된 수많은 학문적 해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치유학, 화해학, 평화학의 교과서는 우리가 써야 한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같등하고 충돌하던 격전지였던 한반도가 화해와 상생의 진원지로 변모한다면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K-story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분단이라는 과거의 비극적 유산이 미래의 희망적 자산이 되는 유쾌한 상상들을 해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하다. 코로나19가 단절시킨 우리의 일상보다도 남북한의 단절이 더 심각해 보인다.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차가워진 남북 관계에 언젠가 다시 온기가 돌아 따뜻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그런 미래를 누군가는 준비해야 한다. 동토에도 봄은 오고, 마른 땅에서도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역전될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죽음의 팬데믹에서 살림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대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더 커져 간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가 공감이지만, 현대문명은 이를 왜곡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공감 방식은 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의 공감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이질감, 더 나아가 적대감까지 유발하는 식으로 오용되곤 한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한 소통은 전례 없이 많은 양적 교류를 가져오지만 실상은 질적으로 매우 얇은 경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수 - 6,653,850명(2022.12.8. 현재)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덧 무덤덤해진 죽음의 숫자는 내 삶에 미동도 일으키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내 가족이나 친척, 동료라면 어떨까? 그때는 공감이라는 심리 기전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결국 공감 능력은 시선과 시야의 확대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상상하는 능력,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을 통해 확장된다. 자밀 자키(Jamil Zaki)는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에서 공감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런 공감하는 능력으로 주위를 돌아보자.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 인간이 겸손해야 자연도 살고 지구도 숨 쉴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공감하며 관계해 나가는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는 서로 협력하도록 진화해 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 왔다. 그런 공감의 관점에서 팬데믹을 바라보자.

세계적 유행병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은 pan(모든)+demos(군중)를 의미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이라는 말이다. 이를 비틀어 얘기하자면,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도 ‘인류 모두(pan+demos)’에게 달려 있다. 인류가 힘을 모으면 죽음의 팬데믹을 살림의 팬데믹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 나에서 이웃으로, 한반도로, 그리고 지구로 지평을 확대하며 살림을 위한 배려와 연대의 팬데믹이 유행했다면 오늘 우리는

자못 다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취약한 곳을 공격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반복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류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적 면역력(social immunity)을 강화하고 회복력(resilience)을 키워야 한다.

에필로그 - 경계를 허물며 살아가기

“온생명(global life)이 기존의 생명 개념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구상에 나타난 전체 생명 현상을 하나하나의 개별적 생명체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전일적 실체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 장희익, 서울대 명예교수, 『삶과 온생명』

사람의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생명체이다. 그런데 장 교수는 세포 하나만 따로 떼어냈을 때 그것을 생명의 단위로 볼 수 있는가를 묻는다. 다른 세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포라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포들의 유기적 결합체인 생물체가 생명의 단위인가? 사람이나 동물에서 보듯이 그런 생명체도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서 생물 종(種)을 생명의 단위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생물 종도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종의 생존에는 태양과 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자양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모든 생명

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장 교수는 이것을 ‘온생명’이라고 하였다.

고립과 단절은 생명에 반한다. 생명의 본질인 소통과 공존, 연대의 가치를 이번 팬데믹을 통해 배워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공개가 주저되는 삶의 자리가 바이러스가 노리는 곳이다. 이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따뜻한 온기가 공유되어야 한다. 팬데믹 위기에서도 과학과 의학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속한 진영과 이념에 갇힌 채 다툼은 이어졌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해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배울 만한 것은 없는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지구의 최고 종(種)으로 등장한 이후 군림만 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 인간 이기주의를 넘어 동식물과 환경도 돌아보며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라는 반(反)생명의 유산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곳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힘들게 치르고 있다. 남북 모두를 압도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종적 전쟁의 기운이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생명을 논하는 게 역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직면한 상황이 어두울수록 생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래야 생명이 반생명을 넘어설 수 있다. 집요한 바이러스는 인류의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하고, 그곳이 또 다른 아웃브레이크의 진원지가 되어 결국은 건강해 보이는 생명도 무너지게 한다. 팬데믹 시대, 공동체를 생각해 본 이유이다. 내 이익, 우리 집단의 이익을 넘어 대학 공동체, 지역 공동체, 한반도 공동체, 지구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게로 시야와 지평을 넓혀 보자. 그리고 이들 공동체의 구성원들, 삶을 잇대고 있는 존재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나만의 경계를 조금씩이라도 허물어 보자. ✨

아흘람 이야기

전 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그 여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아흘람’ 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랍어로는 ‘꿈’ 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아흘람은 필자가 2016년 시리아 난민들 진료 봉사를 위하여 요르단 제라시에 갔을 때 진료의 통역자로 함께 했었다. 19살인 아흘람은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한국인 집에서 그 집 자녀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고, 한 달 전에 요르단의 간호대학을 졸업했다고 했다.

아흘람은 필자의 정신과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들의 길고도 긴 말들을 아주 열심히 들어 주었고, 그것을 매우 요령껏 나에게 통역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들이 울면, 그 환자들의 손을 지그시 잡아 주었고, 어깨를 다독겨려 주는 그 태도가 참으로 어른스러웠다. 작은 몸의 아흘람이 자기보다 훨씬 큰 몸집의 환자들을 능숙하게 돕는 모습은 나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리아 난민 진료 장면. 필자와 아흘람, 그리고 환자의 모습



진료를 받으러 온 난민 환자들 모습

진료의 마지막 날이었던 넷째 날, 환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진료실 아침 시간, 나는 처음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 아흘람에게 질문을 했다. 순간 그녀의 눈에 환한 광채가 났다. 그리고 이슬람과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르단 출신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나야 했던 불우한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집안이었지만, 온 가족은 모두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이었다. 몇 년 전에는 아버지가,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어머니가 각각 메카 순례를 다녀왔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메카 순례를 가는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일이었기에, 아흘람의 부모는 각자 따로 싼 값으로 가는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순례자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갔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 메카 순례를 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코란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 갔다. 내가 물었다.

“그동안 코란을 몇 번 읽었나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이? 하루에 얼마나 읽는데요?”

“매일 30분에서 한 시간씩 코란을 읽어요.”

“그렇게 읽는다면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 며칠이나 걸리죠?”

“20일에서 한 달 정도요.”

그러면서 아흘람은 코란을 제대로 읽으려면 반드시 아랍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코란에 나오는 아랍어 단어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하나의 특별한 개념 (concept)을 가지는데, 그것을 단지 사전적인 의미 (meaning)만을 가지고 번역하면, 코란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속에는 깊은 신앙심과 함께 코란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코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을 읽은 적은 있나요? 아흘람도 알다시피 이슬람에는 4대 성인이 있고,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가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코란에 더하여, 예수의 복음서를 읽어 본 적은 있나요?”

“아니요. 집에 아랍어 성경과 King James Version 영어 성경은 있지만, 아직 성경을 읽지는 않았어요.”

기독교인인 필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코란을 읽고 있는 아흘람에게 불쑥 성경을 읽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례하고, 또 어찌 보면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언뜻 이런 제안을 했다.

“아흘람은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30분에서 한 시간씩 코란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매일 하루 30분에서 한 시간씩 성경을 읽어 왔어요. 우리 한 번 서로 코란과 성경을 바꿔 읽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 영어로 된 코란을 사서 앞으로 코란을 읽을 터이니, 아흘람은 이제부터 내가 줄 영어 주석 성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면 어떨까요?”

이 제안에 아흘람은 아주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용하는 영어 주석 성경 한 권을 알라딘을 통하여 주문하도록 한국인 거주자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것은 사실 나에게 매우 ‘낯선’ 경험이였다. 소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살아왔기에, 따지고 보면 나에게 기독교와 성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절대

적인’ 그 무엇이었다. 그러다가 아흘람에게 성경을 소개하며 보니, 내가 가진 성경과 아흘람이 가진 코란이 갑자기 매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비교되는 매우 ‘상대적인’ 그 무엇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성경과 복음서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다. 아흘람이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서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코란과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흘람도 코란의 내용에 대해 아주 자신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코란을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과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것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가 코란을 읽어 보겠다고 말한 것이 매우 만족스러운 듯했다. 우리의 느닷없는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

요르단 제라시 전통시장 한구석의 낡은 건물 좁은 방에서 이루어진 이 짧은 대화는 아주 작고도 평화로운 대화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이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은 거의 없었다. 중세 십자군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수많은 이슬람인들을 머리를 베면서 “크리스투스 도미누스(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다. 오늘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허리에 두른 폭탄의 안전핀을 뽑으면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다)!”를 외친다.¹⁾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하여, 그 신을 믿지 않는 다른 이교도들을 죽이고 박멸하는 것은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성스러운 의무이며,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는 종교적 정체성이 국제정치적 정체성과 더 극렬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적 갈등과 충돌은 점점 더, 도저히 그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

1) Volf, Miroslav. (2006). *ALLAH: A CHRISTIAN RESPONSE*. NewYork U.S.A, HarperCollins Publishers. 번역본 : 미로슬로브 볼프. (2016). *알라*. 백지윤 역. 서울. IVP, 159

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이다. 그러나 그가 1956년에 태어났을 때, 크로아티아는 지금의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등과 합하여 유고 연방을 이루었던 6개 연방 구성 국가 중 하나였다. 이 유고 연방은 5개 민족이 가톨릭, 정교회, 이슬람의 3개 신앙을 가지고 4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벌어졌던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이 지역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렸고, 잔혹한 전쟁과 엄청난 규모의 인종 청소, 인종 학살이 발생했다. 세르비아 정교회를 신봉하는 세르비아계가 가톨릭을 신봉하는 크로아티아계 사람들과 이슬람인 보스니아계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진행된 이 내전은 볼프 개인에게도 거대한 충격의 사건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이슬람과 가톨릭·정교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체험하였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종교들이 얼마나 끔찍한 학살극을 벌일 수 있는지도 보았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 인종, 민족, 문화, 이념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는 현상과 그것을 극복하고 포용하는 현상

을 분석한 책 『배제와 포용』²⁾을 1996년에 출간하여 세계적인 학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6년, 그는 『알라』³⁾라는 매우 논쟁적인 책을 통하여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신임을 주장했다. 즉 ‘같은 신을 섬기는 종교이니, 설사 교리와 전통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서로 평화롭게만은 살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는 9.11 이후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과 증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필자가 아흘람과 요르단에서 그 날 아침의 대화를 가진 것은 필자가 아직 볼프의 그 저서들을 읽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볼프의 책들을 읽고 그날 아흘람과 가졌던 대화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자문해 보면서, 그것이 향후 종교 간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볼프는 그의 책 『알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상대로 선교할 때, 그리고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선교 (그들은 그것을 ‘다와’라고 부른다)할 때 양쪽이 공히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공동 행

-
- 2) Volf, Miroslav. (1996).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Tennessee U.S.A. Abingdon Press. 번역본 : 미로슬로브 볼프. (2012).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IVP.
- 3) Volf, Miroslav. (2006). *Allah: A Christian Response*. HarperCollins Publishers. 번역본 : 미로슬로브 볼프. (2016). *알라*. 백지윤 역. 서울. IVP.

동 수칙 황금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⁴⁾

“첫째, 그들의 신앙을 당신에게 전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당신의) 신앙을 전하라”

문장의 구조가 좀 복잡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시점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그들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당신이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만 하고 상대방의 신앙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면, 당신도 당신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이 당신에게 신앙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하라.”

4) Miroslav (2006, 278).

이것 역시 좀 복잡한 문장이다. 이것도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의미는 이런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당신에게 그들의 신앙을 전하는 방식이 어떠하면 좋겠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하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의 종교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물리적 폭력으로 강요하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면, 나도 나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볼프는 이 두 번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1)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힘센 자의 압력 아래 굴복을 강요받는 대신, 자유롭게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인간에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신앙이나 이념·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앙, 이념, 가치관이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이나 독립성, 인격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유혹 앞에 늘 서 있다. 그래서 나치가, 공산주의가, 수많은 독재 권력이, 돈과 관련된 이익들이 그리도 수많은 인간들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 굳건히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려 애쓰는 그 신앙, 그 이념, 그 가치만이 진정한 신앙·이념·가치일 것이다.

2)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는 현혹해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앙은 그것을 포장한 껍데기나 그것과 결부된 외적인 보상(돈이나 지위 같은)이 아닌, 그 자체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종교라는 그 본질 자체의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여 소개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보다, 이 종교를 받아들이면 어떤 세속적 이득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보상을 강조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겠다는 식의 거래까지 했던 역사적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 왔다.

3) “자신의 가장 훌륭한 신앙의 실천과 다른 신앙의 가장 나쁜 실천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에서 소개한 1), 2)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3)의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즉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인 최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둘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장 공평하고 옳은 방법은, 양쪽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전제로 하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신앙도 그 원래 내용은 훌륭하더라도, 그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몇몇 사람들의 최악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진 종교 전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상대방이 해석한다면, 나는 그것은 잘못이고 오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똑같다. 따라서 종교 간의 만남이 진정한 대화로 이어지려면, 양쪽은 서로를 일단 ‘스스로 이야기하는 종교적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놓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양쪽 종교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그 종교의 본래적 특성과는 상관없는 추악함으로 인해 각자의 종교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긴장과 증오와 분노 없이 가장 솔직하고 본질적인 대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 회담, 4자 회담, 6자 회담, 그리고?

그런데 볼프는 위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런 ‘두 사람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복잡하다고 이야기한다.⁵⁾

만남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 만남의 첫째 참가자는 ‘나’이고, 둘째 참가자는 ‘당신’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사실은 그런 ‘양자 회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4자 회담인데, 그 회의의 참가 참석자로 셋째는 ‘내가 생각하는 당신에 대한 이미지’이고, 넷째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다.

나와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는 나와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와 당신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당사자인 나와 당신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그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정확한가, 아니면 왜

5) Miroslav (2006, 270-272).

곡되었는가 된다. 편견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혀 상대방에 대하여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만남에 들어가면, 그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대화가 건설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양자의 만남 그 자체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생각, 판단을 만남 이전에 먼저 철저히하고도 정직하게 점검하는 일이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씩 그 이미지를 점검하는 사전 작업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양자 회담, 아니, 4자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노력은 만남을 가지기 전에 미리 마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만남의 현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를 직접 만났을 때가 내가 가졌던 이미지, 내가 가져 왔던 오해와 편견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볼프는 유감스럽게도 (?) 그 만남에는 그 넷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존재가 더 참가한다고 한다. 다섯째 참가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이고 여섯째 참가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양자 회담이 4자 회담으로 바뀌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 회담이 사실은 6자 회담이라는 것이다. 앞의 4자 회담 참석자들도 각자 다들 대단한 힘들음을 가지고 있지만, 6자 회담에 새로 참여하는 이들의 힘이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는 안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실제로 ‘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규정한다. 스스로를 완벽하고 전혀 오류가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만남의 장소에 나간다면, 논쟁 속에서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때 확신 속에서 상대방을 바로 오류와 악으로 매도하고 단호하게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일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진실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규정한다면, 상대방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배우며 수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에 만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두 사람의 만남을 한순간에 극도로 황폐하게 파괴하기도 하고, 또는 풍요롭고 창조적인 것으로 건설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 인간의 만남’이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들의 만남’인가? 그래서 볼프는 “편견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왜곡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⁶⁾고 제안한다.

6) 알라, 272.



이중 보기 (double vision), 그 신비한 터널

이상의 내용들은 이론적으로 수월하게 공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서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그 방법으로 ‘이중 보기 (double vision)’라는 방식을 제안한다. 사실 우리가 이미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 성구에 따라 알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볼프가 제안한 제목에 따라 필자가 설명을 붙인다면 다음과 같다.⁷⁾

1) “우리는 자신의 외부로 걸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평범한 (또는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한 것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 스스로 한걸

7) 『배제와 포용』 400-403.

을 거리를 두고 내가 타인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이미지, 생각, 판단을 다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왔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에는 사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진 근본적 가치관, 판단,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나의 근본적 가치관은 얼마든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가 가진 생각, 의견, 판단 등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프는 이 현상을 ‘한 발은 자신의 안에, 한 발은 자신의 바깥에 두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두 발을 다 내 안에 두었을 때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던 나의 생각과 판단의 모습들을, 한 발을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돌아보면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사회적 경계를 가로질러 타자의 세계로 들어가 잠시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볼프는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즉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상대방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그리고 자신(=상대방)을 보라는 것

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역지사지(易地思之)적 발상과 시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항상 ‘나의 시선’으로만 나와 타인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 타인을 보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불프는 ‘타자의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보기’라고 표현했다.

3) “우리는 타자를 우리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 가치, 믿음을 버리고 타인의 정체성, 가치,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위의 1)과 2)의 작업을 통하여 가지게 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가져다 놓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생각·판단과 비교하며 생각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타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과 이미지, 생각,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려 하였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잘 성찰하고 숙고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 작업을 진지하게 하라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관과 신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반대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반대의 이유와 내용을 스스로 충분히 더 폭넓게,

즉 타인 입장에서의 시선과 의견까지를 포함하여 폭넓게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생각·판단 중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정되는 사항 중에는 나와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도 포함될 것이다.

4) “우리는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볼프는 어떤 판단도 최종적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가 최종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종교가 기본적 원칙은 분명히 제시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는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어떤 것은 신비의 영역 속에 있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의 그런 신비한 특성, 즉 불명확한 특성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신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다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은 불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신 앞에서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그런 선택 자체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선택은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또는 내 사고의 성숙성이 달라짐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에서의 겸허함’이다. 자신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에 찬 태도는 사실 신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일임을 종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 준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는 강고(強固)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런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 역사였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체제·이념·권력의 무너짐을 보여 주는 역사였다. 이런 이중 보기의 긴 터널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 터널 끝을 지나 바깥의 찬란한 빛 속에 도달하는 신비를 체험할 것이다.

에필로그

요르단을 떠나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부다비공항에서 아흘람과의 약속대로 영어판 코란을 구입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읽기 시작했다. 사실 나에게는 너무도 낯선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사람들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사로잡고 움직이게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흘람이 언급했던 코란에 나오는 단어들의 그 ‘개념’ 전달이 이 영어 번역본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코란을 읽어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아흘람도 성경을 읽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만 같았다. 아랍어를 모르고 이슬람의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런 것이었겠지만, 내가 본 코란은 성경보다 많은 점에서 부족(?)해 보였다. 아마 아흘람도 성경의 내용이 코란의 내용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경전 하나만을 읽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교’가 자기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외국 여행을 나갔을 때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특성이 더 잘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인 것 같았다. 괴테는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까 봐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볼프가 이야기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참가하는 존재들의 수효에 대한 이야기에서였다. 나는 그곳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참가자, 즉 자신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타인의 타인에 대한 이미지까지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볼프는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일곱 번째 참가자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신(神)이다.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는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아니든, 인정하든 아니하든, 신이 참석한다는 것이다. 각자 자기 자신, 자신이 가진 타인에 대한 이미지, 자신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무언가에 대하여 대화하고 대립하기 시작할 때, 누가 옳고 그른가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더 힘 있고 폭력에 능한 존재가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옳은 것이 ‘되는’ 것인가? 볼프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 만남의 최종적인 판단자, 그리고 인도자,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참석자이신 신(神)을 의식하면서 만남 앞에 서야만, 인간의 만남은 비로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보다 더 힘들고 거친 만남이 있는 곳이 생각에 떠오른다. 바로 한반도이다. 전 세계가 대충 20세기 말에 이미 그 결론을 내린 후 뒤에 놔두고 떠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아직도 20세기식 사생결단의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과 남한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결코 서로를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에 공존할 수 없는, 즉 상대를 문자 그대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존재로 인식하여 진정성 있는 ‘정중한 대화’가 단 한 치도 불가능한 대립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매일 겪고 있다. 아니 어쩌면 남북 갈등의 그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판 박아 놓은 소위 ‘남남 갈등’ 역시 천 년을 넘게 이어져 온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불화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볼프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류 정신사의 진보는 자신과 다른 존재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의 진보와 궤를 같이한다. 자신과 인종·언어·종교·이념·문화가 다른 존재들을 아예 인간이 아닌, 바퀴벌레처럼 박멸해야 할 존재로 보던 것으로부

터, 그들이 인간이기는 하나 매우 열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거쳐, 그들을 ‘차이를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데 도달하기 위하여 인류는 아직도 멀고 먼 여정 속에 있다. 누가 알겠는가? 한반도가 그 극단의 갈등 상황 속에 있기에 그 해결의 역사적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큰 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면, 가장 극단적인 이념의 벽을 가진 한반도에서 그 인류 정신사 진보 여정의 돌파구를 열 수는 없을까?



요르단 제라시에서 시리아 난민 진료 봉사 중인 필자 모습(2016년)

아흘람은 그 사이에 25살의 아가씨가 되었을 것이다. 그 어른스럽고 당찬 아가씨가 코란과 함께 성경까지 읽으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을까? 아마도 내가 변한 만큼 아흘람도 변했을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크게 변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

김신곤

고려대 의대 내분비내과 교수. 동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고려대 대학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내과 과장, 고려대의료원 기금사업본부장, 대한내분비학회 희귀질환연구회장,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인 의학과 인문학, 의사와 환자, 보수와 진보,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 균열을 내며 서로가 소통하며 통섭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인문사회이학교실 교수. 정신과 전문의. 사회정신의학영역에서 북한, 통일, 탈북자, 사회적 트라우마와 치유, 남남갈등 등을 연구한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트라우마와 사회 치유』, 『평화와 반평화』, 『정신의학의 기독교』,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 등이 있다.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명연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관청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태현
어디어장의 장자斑子 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켜는 혹은 혹은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 16호 생활톤: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살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철아
-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확립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 19호 성평등, 교실에 달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교운
- 20호 사회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_ 이해영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_ 이이현

21호 세계의 끝 윈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_ 백창화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_ 안병일

22호 Behind the scenes:
2021 고려대학교 다양성 조사와 보고 _ 김채연
다양성(Diversity)으로의 변화,
조직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라 _ 양윤재

23호 조선 시대 궁중 회화의 다양성:
조선 후기 궁중의 그림 병풍과 이국 취미 _ 윤민용
사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세 가지 시선 _ 신수진

24호 1부 - 강연: D&I의 심리학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이
역량인 이유에 대해 _ 김정일
2부 - 대담: 음악에서의 다양성 _ 진은숙, 조은아

25호 4차 산업혁명의 요람에서 만난 다양성 _ 김서경
자기다움과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공감 교육 _
박보애, 서현선, 신현상

26호 영시(英詩)가 전하는 다양성의 가치 _ 장성현
러시아 문학, 다양성으로부터의 가치 _ 최정현

27호 다름을 마주하는 용기:
데이터주의 시대, 다양성과 어울림의 의미를 묻다 _ 신은경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소고 _ 조은주

28호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_ 김승섭

29호 기업은 왜 다양성이 필요한가? _ 심영환
나의 세상을 부정하는 용기 _ 홍지인

30호 잃음의 인과:
다양성에 대한 어느 문화예술인의 소회 _ 안재우
정치적 올바름입니까, 혐오입니까?:
루소포비아를 다시 생각한다 _ 이지연



KU Diversity



<https://www.diversitas.kr>

Diversitas

권호 31호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